

사회

바캉스 피크 여름축제 절정

10주만에 비 없는 주말·휴일 ... 피서객 몰릴 듯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남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여름 축제가 열린다. 또 광주·전남은 10주 만에 주말에 비가 내리지 않는 '화창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피서객들의 '나들이 길'을 도울 전망이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8월 첫 주말에만 5~6개의 여름 축제가 전남지역 해변과 섬 등에서 일제히 열려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장흥 탐진강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장남진 물축제'는 8월 1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전시대마관 운영, 비키니 미인선발대회, 뗏목타기 대회, 수상레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세워 지난 28일 개막했다.

또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는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열린다. 선박 퍼레이드와 공연, 춤추는 바다분수, 전통한선 노젓기 체험, 세계모험대 전시 등이 선보인다.

'신안 민어축제'는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일원에서 31일까지 계속된다. 천일염나르기, 해변보물찾기, 맨손 활어잡기, 물고기 페이스페인팅, 임자민어가요제 등의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3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영광에서 '갯벌마라톤 축제'가 열린다.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백바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갯벌마라톤(5km·10km코스), 갯벌 속의 보물찾기, 향토 풍물시장 등이 열린다.

진도에서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군내면에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열린다. 무궁화 사진 전시회, 무궁화 분화 품평회, 무궁화 페이스페인팅, 무궁화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진행된다.

또 8월 5일에는 무안 일로읍의 회산백림지에서 '무안 연산업축제'가 개막돼 2010명분 연삼남 나눔잔치와 대광해수욕장 일원에서 31일까지 계속된다. 천일염나르기, 해변보물찾기, 맨손 활어잡기, 물고기 페이스페인팅, 임자민어가요제 등의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축제	장소	일시
장흥 장남진물축제	탐진강변 일대	8.1까지
목포 해양문화축제	평화광장 일원	7.30~8.3
신안 민어축제	대광해수욕장 일원	7.31까지
영광 갯벌마라톤축제	염산 백바위해수욕장 일원	7.31~8.1
진도 나라꽃무궁화축제	군내면	7.30~8.6
무안 연산업축제	회산백림지	8.5~8
강진 청자축제	고려청자도요지 일원	8.7~15

강진 청자축제는 8월 7일부터 15일까지 '흙·불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도요지 일원에서 33개 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열린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인 31일과 1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성 강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30일 예보했다. 광주·전남에 주말 또는 휴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최근 10주만의 일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30일과 31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성 강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30일 예보했다. 광주·전남에 주말 또는 휴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최근 10주만의 일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30일과 31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성 강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30일 예보했다. 광주·전남에 주말 또는 휴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최근 10주만의 일이다.



지난 2005년부터 논란을 빚어온 정율성 선생 생가터 확인이 또다시 실패함으로써 정식 문중과 광주남구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불로동 히딩크호텔 앞마당 탄생지 제작시 모습(왼쪽)과 남구가 조성한 정율성 생가터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율성 생가터 확인 또 실패

최종결론 연기 ... 정씨문중·남구 갈등 심화

중국에서 3대 음악가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정율성(鄭律成 1914~1976년) 선생의 생가터에 대한 최종 결론이 또다시 미뤄졌다.

광주시가 구성된 '정율성 선생 생가고지위원회'(위원장 박선홍)는 30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광주시 남구 양림동과 불로동 중 한 쪽을 생가로 결정짓지 못했으며, 다만 두 곳 모두 정율성 선생이 거주했던 것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당초 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8일 다시 11차 회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소모적 논쟁을 벌여온 정율성 생가터 확인은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주변에는 광주 불로동과 양림동 모두를 그의 생가터로 인정하는 방안도 흘러 나오고 있어 자칫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생가터 결정을 놓고 양측이 여전히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원회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빚어온 남구청과 정씨문중회가 각각 상대지역을 생가터로 발표할 경우에 대비해 크게 반발하며 법적대응까지 시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사적 인물 중에서 출생지 다름이 발생할 경우, 사법부는 불분명한 호적기록이 아닌, 본인 또는 친척의 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왔다"며 "양측이 출생지라고 한다면 임무를 받기 전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토지대장, 호적자료 등을 근거로 불로동을 선생의 생가로 주장하고 있는 정씨 문중회도 고지위원회의 입장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고지위원회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는데도 반발을 우려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맞섰다.

2005년 이후 수차례 양측의 고지와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생가 문제가 결국 시의 중재마저 실패하면서 '정율성 선생의 생가는 2곳'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남구청과 문중회 등으로 구성된 기념사업회는 양림동과 불로동에 각각 선생의 생가, 동상 등을 마련하고 '그들만의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곳에는 매년 수천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정율성 생가 논란은 남구가 지난 2004년 6월 '정율성 기념 국제 학술 대회 개최', '양림동 79번지 생가터 지목' 등을 시작으로 각종 기념사업을 실시한 가운데 정씨 문중회가 동구 불로동이 생가터라고 주장하면서 계속돼 왔다.

정율성은 젊은 시절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인민해방군인 '팔로군 행진곡'과 중국의 아리랑 격인 '연안송' 등 360여곡의 노래를 창작해 중국의 3대 음악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김호 기자 kimho@kwangju.co.kr

전투장갑차 침몰 합동조사단 구성

군 당국이 지난 29일 장성에서 발생한 육군 전투장갑차(K21) 침몰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육군 관계자는 30일 "합동조사단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국방기술품질원, 제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참여한다"며 "조사 결과 사고원인이 장비결함 문제로 밝혀지면 제조업체에 장비보완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시50분께 장성군 삼서

면 삼두대 앞 수상조정 훈련장에서 시험훈련 중이던 K-21이 침몰해 김모(23) 중사(진급예정)가 숨졌다.

국산 장갑차인 K-21은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도 양평 남한강 일대에서도 하천엔 도중 엔진이 정지한 바 있어 장비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육군은 전날부터 K21의 수상운행을 중단시켰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0분 해질 19시 37분

폭염주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 조금	25/32℃
목포	구름 조금	24/30℃
여수	구름 조금	24/30℃
완도	구름 조금	25/31℃
구례	구름 조금	24/33℃
해남	구름 조금	25/32℃
장흥	구름 조금	25/32℃
고흥	구름 적어 맑아짐	23/32℃
순천	구름 조금	24/32℃
영광	구름 조금	25/32℃
진도	구름 조금	25/32℃
전주	구름 조금	24/33℃
남원	구름 조금	23/33℃
혁신도	구름 많음	22/28℃

지역별 날씨

서울	구름 조금	25/32℃
인천	구름 조금	24/30℃
대전	구름 조금	24/30℃
전주	구름 조금	24/33℃
광주	구름 조금	25/32℃
부산	구름 조금	25/31℃
대구	구름 조금	24/33℃
제주도	구름 조금	24/32℃
충청	구름 조금	24/32℃
경북	구름 조금	25/32℃
경남	구름 조금	25/32℃
충남	구름 조금	24/32℃
충북	구름 조금	24/32℃
강원	구름 조금	24/32℃
제주	구름 조금	24/32℃

◇주간 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5/33	26/33	25/33	26/33	24/31	24/30

법관 34명 전보 인사

대법원은 30일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박삼봉 전주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10명을 포함한 34명의 전보 인사를 내달 11일자와 21~22일자로 단행했다.

춘천지법원장에는 유재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는 서기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는 고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되는 등 사법연수원 11기인 고참 고법부장 3명이 나란히 법원장으로 나왔다.

검찰 간부 25명 사표

검찰이 최근 고검 검사급 이하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이후 부장검사 10명을 포함해 25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다.

위재민 서울고검(16기) 검사와 손기호(17기) 고양지청장, 이은중(17기) 안양지청장, '강력팀'으로 평가받는 박중근(17기) 대구 서부지청장, 이익경(18기) 군산지청장 등이 검찰을 떠났다. 부장검사 중에서는 서울 동부·남부·북부사과 대구, 의정부 지검에서 총 10명이 사표를 냈다. /연남뉴스



서창 만드리 풍년제 30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 세동마을 들녘에서 열린 '서창 만드리 풍년제'에 참석한 농민들이 논길을 가로지르며 조상들이 풍년을 기원하던 옛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만드리'는 '마지막 김매기'라는 뜻으로, '백중'(百中)인 음력 7월 15일에 불렀던 농모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송원여고 60여명 식중독

광주 송원여고 학생 수십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0일 송원여고 학생들에게 따르면 이 학교 학생 3학년 A(19)양 등 1~3학년 60여명은 지난 28일 학교에서 점심을 먹은 뒤 복통과 발열 등 식중독 증상을 겪었다.

이날 점심 급식 식단은 ▲전복소라죽/참쌀밥 ▲오리훈제 버섯찜 ▲도토리묵 ▲김치 무침 등이었다. 학생들은 점심을 먹은 직후부터 복통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비교적 상태가 심한 일부 학생들은 설사 등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다음날인 지난 29

아내 살해 기도 목포 40대 영장

목포경찰은 30일 아내를 살해하고 역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강모(48·해남군 해남읍·운전기사)씨와 내연녀 김모(49·완도군 완도읍)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과 2일 새벽 5시께 해남군 육천면~강진군 도안면 간 18번 국도 상에서 아내 조모(47)씨와 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4월께 내연녀 K씨(48)와 결혼하기 위해 아내에게 수 차례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가 이혼해주지 않자 병행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아파트 현관문에 구멍있나 보세요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 일곡동 S아파트에 사는 J(54)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20분께 집을 나서던 중 철재 현관문에 장착된 디지털 도어락 옆에서 0.5mm 가량의 구멍을 발견했다. 구멍에는 육안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도록 현관문 색깔과 비슷한 회색 고무가 끼워져 있었다.

J씨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사라진 물건이나 금품은 없었다. 하지만 J씨는 불안한 마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웃으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전해들었다. 며칠 전 우연히 현관문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를 후 집이 털렸다는 것이다. 피해 세대 만도 4~5세대에 이르는 게 입주주민들의 얘기다. J씨는 "도둑이 미리 잠금장치 옆에 드릴로 구멍을 낸 뒤 집을 비운 사이를 노려 구멍에 철사를 넣고 안쪽에서 열림 버튼을 누르고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8087) 김종두



일본뇌염 경고

질병관리본부는 30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남지역에서 50% 이상임을 확인하고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웅덩이 등을 발견할 때에는 모기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경보는 유행예측조사를 통해 특정지역에서 하루 채집된 모기 가운데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연남뉴스

광산구에 또 편의점 강도 금고 통째로 빼앗아 도주

30일 새벽 3시15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모 편의점에 30대로 추정되는 괴한이 침입해 주인 지모(42)씨를 폭행하고 현금 3만원과 문화상품권 20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금고를 통째로 빼앗아 달아났다.

용의자는 편의점에 들어선 직후 지씨에게 주먹을 한 차례 휘둘렀으며, 2분여 만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났다. 건장한 체격의 이 남성은 검은색 모자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이 180cm의 키에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지씨의 진술과 편의점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화면 등을 토대로 동종 전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행기자 golee@

민취재 깨워주시 "소매치기" 폭행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깨워준 20대를 소매치기로 착각해 폭행한 40대 소매치기로 오해를 받은 20대가 시비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둘러 나란히 경찰서행.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4)씨는 이날 새벽 2시5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파출소 앞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흔들며 깨운 행인 한모(28)씨를 폭행하고, 한씨 역시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린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깨워준 한씨를 소매치기로 착각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에서 "술집에 눈을 땀는데, 내 지갑이 발 옆에 놓여 있어 순간 소매치기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